

美 재무장관 이례적 구두개입… 원화 약세 제동 걸릴까

올해 외국인 3조4934억 순매수
채권 가격 상승·환차익 노린 듯
재무장관, 원화 가치 하락 우려

외국인의 채권 매수와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에 대한 이례적 구두 개입이 추락하는 원화 가치를 방어해 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은 장외채권시장에서 3조4934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147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2025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작년 국제 121조1000억원(2024년 74조9000억원), 통안채 19조3000억원(2024년 16조5000억원) 등 채권을 전년 대비 72조2000억 원 더 많이 샀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338조3000억원으로 전년(2024년 말 268조2000억원) 대비 70조1000억원(26.1%)이 증가했다.



이중욱 관세청 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장 한 관계자는 “높아진 시장 금리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등에 힘입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싸지는데, 최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며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자 채권을 저렴하게 사려는 외국인의 투자가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날 한국의 10년 만기 국제 금리는 연

3.493%로 지난해 12월 말 3.385%, 지난해 1월 초 2.749%보다 큰 폭 상승했다. 이날도 한국은행이 연 2.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국제금리는 전일 대비 0.075%p 올랐다.

원화 가치 하락도 외국인을 채권시장으로 불러 모은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연평균으로 사상 첫 1400원대 기록

으로, 외환위기(1395원)와 글로벌 금융 위기(1276원)를 모두 넘어선다. 원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좁아져 따라 채권시장에 꾸준히 돈이 몰리고 있다”며 “지난해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달러를 들고 와서 채권을 사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시장에서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과 환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사는 것은 일단은 나쁘지 않은 신호다. 비록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지만 망하지 않을 확률, 안전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나중에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는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역대급 채권 매수와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에 대한 이례적 구두 개입이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스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이 미국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이어서 한국 외환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은 정부의 추가 시장 개입 경계감을 높여 줄 것으로 보여 가파른 원화 약세 흐름이 일단 주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복합자산 ‘데이터센터’, 뉴이코노미 주인공” 토큰증권 도입… 다양한 사업 증권화

인터뷰 진형석 삼성KPMG 전무

‘통신사 설비’서 ‘투자자산’으로 인식
에너지·산업 변화도 고려하는 자산

“데이터센터는 한 가지로 규정하기보다, 상업용 부동산, 인프라, 디지털산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복합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진형석 삼성KPMG 전무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 “이걸 누가 사지?”…신세계I&C 매각이 던진 첫 질문

2018년 무렵 신세계I&C가 보유하던 구로 사옥 매각은 전형적인 업무시설 거래처럼 보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달랐다. 건물 일부가 이미 데이터센터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피스로만 보기도, 순수 데이터센터 자산으로 정의하기도 애매했다.

매각 자문을 맡았던 삼성KPMG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다. “이걸 누가 사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진형석 삼성KPMG 전무가 메트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삼성KPMG

당시 시장에서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보다는, 운영 경험을 갖춘 사업자의 영역에 더 가까운 자산으로 인식됐다. 이런 시장 인식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있던 인물이 진 전무였다. 그는 오랜 기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자문을 담당하며 시장의 신뢰를 받아온 실무형 베테랑으로 평가된다.

◆ 데이터센터 개발, 구조를 설계하는 종합 자문 필수

데이터센터는 오피스 등 전통 자산 대비 초기 투자비(CAPEX)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아 금융기관

의 투자 심사가 까다롭다. 전력 수급, 인허가, 민원, 사전 임차인(프리리스) 확보 여부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검토된다. 그만큼 데이터센터는 과거처럼 입지와 임대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와 IT 산업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유치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온 디지털 인프라이자, 상업용 부동산의 뉴이코노미 섹터로 평가된다. 다만 RE100,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ESG 기준 강화, 분산 에너지활성화특별법 등 정책 환경 변화와 AI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투자 판단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어 전문 자문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섹터다.

진 전무는 “삼성KPMG는 데이터센터를 부동산·인프라·회계·세무를 아우르는 자산으로 보고, 구조 설계부터 엑시트까지 연결하는 윈스톱 자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No.1 자문사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번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일반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인 한 종류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유통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이에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허용한다. 기존보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사인 인프라 시설과 투자자보호 세무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된다. /허정윤 기자

‘한화 인적분할’에 목표주가 상승

불확실성 해소에 그룹주 재평가

한화의 인적분할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주 가치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29.78% 오른 2105원에 마감했다. 한화시스템(9.41%), 한화

(6.23%), 한화오션(4.86%) 등도 4~9% 상승했다.

흥국증권은 한화에 대해 인적분할로 인해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0만 4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BNK투자증권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했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

동안 개연성은 있었지만 시점을 알 수 없어 주가 부담 요인이 됐던 지배구조 이슈가 이번 결정으로 정리됐다”며 “사업군별 독립 경영 체제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적분할과 동시에 제시된 주주환원 정책도 재평가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화는 자사주 445만주(발행 주식의 5.9%)를 즉시 소각하고, 올해 최소 주당배당금(DPS) 1000원을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주목

삼성운용, 올해 개인 순매수 1883억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콜’ ETF가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해당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올해 1883억원으로 전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

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하루동안 486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연초 이후 전체 ETF 가운데 개인 순매수 5위를 기록했다. 이 ETF는 지난 2024년 12월 상장 후 약 13개월 만에 누적 개인 순매수 1조5000억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순자산은 2조2685억원에 이른다. /신하은 기자